

오월정신 하나된 대한민국...3000여명 '임 행진곡' 제창

미리보는 43주년 기념식

오월 어머니 4인의 삶 영상 상영

오월 희생 정신 계승 국민통합으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정부 기념식이 18일 광주 서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다.

이번 기념식은 광주의 오월정신을 전 국민이 함께 계승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특히 올해 기념식에는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들이 모두 광주행을 하면서 5·18민주화운동 제43주년을 계기로 국민 대통령의 한마당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공법단체가 광주시민사회·광주시와 갈등을 표출하고 있어 오월정신의 뿌리인 대동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18일 오전 10시부터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정부 인사, 각계 대표, 학생 등 3000여명이 참석해 대규모로 치뤄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기념식은 '오월정신,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43년 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송고한 희생을 선택한 5·18 유공자들을 기리고 5·18정신을 계승해 국민통합을 해야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것이 보훈처 계획이다.

기념식은 입장 및 개식, 국민의례, 여는 영상, 경과보고, 헌정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의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버스를 타고 내리는 15명의 오월 어머니들을 맞이하는 것으로 입장이 시작된다. '민주의 문'까지 어머니들과 동반한 윤 대통령은 방명록을 작성하고 5·18 공법단체장, 보훈처장 등과 함께 입장을 한다.

국민의례에서 애국가 1980년 당시 계엄군들의 버스 집단 사격으로 숨진 광주 주남마을의 지한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창한다.

이어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옛 전남도청 앞을 지켰던 시계탑의 이야기가 영상으로 본 행사 전에 펼쳐진다.

경과보고는 5·18 유공자 자녀들이 맡았다. 옛 광주교도소에서 계엄군의 사격으로 숨진 임은택(사망 당시 36세)씨 손자인 임도열(28)씨와 부상자회 유공자의 자녀 이인선(여·30)씨가 주인공이다.

임씨의 할머니인 최정희씨는 40주년 기념식에서 남편을 찾아 해낸 지 열흘 만에 광주교도소에서 압매장 상태로 발견했던 사연을 편지 형식으로 낭독해 모두를 눈물짓게 하기도 했다.

이어지는 헌정공연에서는 5·18의 상처 속에서도 오월정신을 지키고 알리는데 일생을 바친 4명의 '오월의 어머니' 이야기를 담은 영상과 함께 소리꾼 이봉근이 나훈아의 곡 '엄니'를 헌정곡으로 부른다.

엄니는 1987년 가수 나훈아가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젊은이들이 안타까워 망자의 어머니들에게 바치는 위해 지은 곡이다.

나훈아는 이 노래를 카세트 테이프 2000개에 담아 광주 어머니들에게 보냈으나 전달되지 못하고 잊혀졌다가 2020년에 공식 발표했다.

기념사 후 기념공연에서는 광주·서울·부산·대구 지역의 청소년과 장장년층 30명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의 '바위섬' 제창과 오월정신을 지키고 미래로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국민들의 인터뷰 '함께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광주 서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오월어머니회 회원들이 헌화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있는 오월' 영상 등이 상영된다.

기념식은 연합 합창단과 참석자 전원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면서 끝이 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묘지서 공법단체-姜시장 고성·삿대질

교육관 위탁 공모 놓고 갈등

관리소와 현수막 게재 마찰도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추모제가 열린 17일 5·18민주묘지에서 5·18 공법단체들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고성을 지르며 다툼을 벌여 물의를 빚었다.

황일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과 정성국 공모자회 회장은 17일 광주 서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강 시장에게 1분여 동안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질렀다.

두 공법단체 회장은 5·18추모제를 마치고 5·18민주묘지를 나서던 중 강 시장을 마주치자 1분여 동안 "여기가 어디라고 참배하러 오느냐", "시장은 똑바로 하라"며 강 시장을 막아섰다. 강 시장은 문제인 전 대통령과 함께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러 가던 길이었다.

고성이 오가던 중 5·18부상자회 회원 중 한 명이 황 회장에게 "(황)일봉이 형이나 5·18 여간간히 팔아먹으라, 창피한 줄 알라"며 끼어들면서 다툼이 커졌다.

5·18부상자회와 공모자회는 최근 강 시장이

5·18교육관 위탁운영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려 두 공법단체가 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하게 됐으며 강 시장 등 6명을 고소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두 공법단체는 지난 16일 밤 5·18민주묘지 일대에 '민주화 팔아 당선되더니 불통이 끝이 없구나', '불법행정 저지른 강기정 수사하라'는 등 내용이 담긴 현수막 60개를 걸었다.

17일에도 추모식이 열리기 직전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일대에 현수막을 걸다가 5·18민주묘지관리소 직원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또 이날 오전 강 시장이 5·18민주묘지 입구에서 현수막을 직접 떼어내자, 일부 5·18단체 회원들이 강 시장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상황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5·18부상자회 관계자는 "5·18 추모 주관을 시작하는 추모제 당일부터, 엄숙해야 할 민주묘지에서까지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 부끄럽다"며 "5·18의 전국화·세계화를 부르짖기 전에 우리들의 자정 노력부터 쏟아야 진정한 공동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 5·18추모제 참석...“이 자리 올 수 있어 감사”

헌화·분향... 유족 “와줘서 고맙다”

전두환 손자 전우원(27)씨가 17일 광주 서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추모제에 참석했다.

전씨는 5·18민주묘지 방문은 지난 3월 31일 첫 사자 행보에 이어 두 번째다. 5·18 가해자 중에서는 최초로 5·18추모제에 참석한 사례이기도 하다.

전씨는 이날 5·18기념재단으로부터 받은 '5·18 나비 뱃지'를 착용하고 묵묵히 추모제를 지켜본 뒤, 유가족·추모객과 함께 줄 지어 서서 헌화와 분향을 했다. 추모제 도중 5·18 유가족들이 "와줘서 고맙다"고 다독이자 허리 숙여 제차 사죄 및 감사를 전했다. 전씨는 "지난 3월 31일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추모제에 참석했다"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며, 이 자리에 또 올 수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많은 분들이 희생했다는 사실이 추모제를 통해 기억될 수 있길 바란다"며 "오늘은 제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보다



전우원씨가 17일 5·18 민주화운동 제43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헌화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더 각광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전두환 아내 이순자씨가 전씨에게 '할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하느냐'며 문자를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가족이 자랑스럽지 않다"고만 답했다. 5·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할아버지 전두환이 사실상 발표명령자로 지목된 점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전씨는 참배 이후 광주 서구 남동 '메이홀'을 둘러 '5월 어머니들의 그림 농사전' 전시를 둘러보고, 금남로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오월시민민간장에 참여해 주먹밥을 만들고 각종 부스를 둘러보기도 했다.

5·18유족회가 주관하는 5·18추모제는 5·18 희생자들을 위해 제례를 올리는 행사로, 5·18 추모주간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첫 행사다. 5·18 추모 행사는 이후 민주기사의 날(5월 20일)·부활제(5월 27일)까지 10일 동안 이어진다.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 서구 자미로45(신안동) 공 광주시 서구 서향2길3(서향동)